

heart+화와 heart+두려움과 사용

조영순

(전남대학교)

Cho, Youngsoon. (2014). *Heart+anger, Heart+fear and Their Us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2(4), 253-274.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metonymies and the metaphors of anger and fear exploiting HEART (*heart+anger* and *heart+fear*), and to analyze the use of their types. Metonymies of *heart+fear* are presented and three types of metaphors of *heart+anger* and *heart+fear* are identified: HEART AS A CONTAINER type, HEART AS AN AGONIST type, and BAD HEART FOR BAD FEELING type. Examining corpus data reveals that fear exploits HEART much more than anger does; and the two emotions similarly prefer HEART AS A CONTAINER, HEART AS AN AGONIST and BAD HEART in that order; but they use HEART AS AN AGONIST and BAD HEART to different degrees. Through the different uses, different stages and conceptualizations of anger and fear get salient: INTENSITY of anger and the initial stage of fear, fear as an antagonist attacking HEART, and the negative evaluation of anger.

주제어(Key Words): 감정(emotion), 화(anger), 두려움(fear), 가슴(heart), 은유(metaphor), 환유(metonymy), 사용(use), 원형시나리오(prototypical scenario), 감정 개념(emotion concept), HEART AS A CONTAINER, HEART AS AN AGONIST, BAD HEART FOR BAD FEELING

1. 서론

인지언어학의 중요한 가정은 우리의 인지나 사고가 신체화된다(embodied cognition)는 것과, 언어는 신체화된 인지나 사고를 반영한다는 것이다(Johnson 1987; Lakoff와 Johnson 1999). 신체화된 경험은 인지 레벨에서 이미지 도식이나, 이들이 체계적으로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확장된 개념 은유 등에 반영된다.

최근 인지의미론 연구는 신체화된 인지를 보다 구체적인 분야에서 확인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감각과 관련된 인지를 연구함으로써 인지의 감각적인 면을 부각하는 것이다. 그 결과

시각, 미각, 촉각, 배고픔, 졸림 등의 감각의 개념화가 밝혀지고 있다(Caballero와 Díaz-Vera 2013). 다른 하나는 신체기관을 근원영역이나 목표영역으로 하는 개념화 방식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Charteris-Black 2003; Sharifian et al. 2008; Yu 2003, 2008a, 2008b 등). 이에 따라 눈, 얼굴, 입 등의 외부 신체기관과 심장, 간 등의 내부 신체기관을 개념화하는 방식과 이를 활용한 인간 경험의 개념화 방식이 밝혀지고 있다.

가슴은 인지의미론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신체기관 중 하나이다.¹⁾ 여러 언어에서 가슴 혹은 심장(heart)의 개념화 방식에 대한 연구를 모은 Sharifian et al.(2008)은 가슴이 많은 언어에서 감정의 거처(site of emotion)로 개념화되고, 감정 개념화에 가장 활발히 활용된다는 것을 밝혔다.

국내에서도 가슴을 비롯한 신체어의 연구가 활발한데, 대부분 은유와 환유를 통한 신체어의 의미 확장을 다루고 있다(배도용 2001,2002; 이광호 2006 등). 가슴과 감정과의 관련은 김향숙(2001)에서 가슴을 활용한 관용적 감정표현이 제시되고, 임지룡(2006)에서 코퍼스에서 검색한 가슴을 활용한 다양한 감정의 환유가 제시되어 있다.

이 글은 영어 *heart*가 화와 두려움이라는 감정 표현에 활용되는 방식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인지의미론에서 감정 개념화는 활발한 연구와 큰 성과를 보여 왔고(Lakoff와 Johnson 1980; Kövecses 1990, 2000; 임지룡 2006 등), 가슴은 감정의 거처이기 때문에 가슴을 활용한 개별 감정의 개념화를 밝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후속 연구이다.

화와 두려움은 모두 부정적 감정이며 몸을 떠는 유사한 신체 생리적 반응이 있는 반면, 화를 느낄 때는 체온이 올라가지만 두려움을 느낄 때는 체온이 내려간다는 점에서 다르다. 영어에서 이들은 적(enemy), 자연력, 물리력 등을 활용하여 유사하게 개념화되지만, 감정의 통제와 관련, 화는 폭발단계 혹은 통제 불능(loss of control) 단계가 정교화 되고, 두려움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다르다(Kövecses 1990:85).

*heart*를 활용하여 표현된 화와 두려움의 비유표현(이후 *heart*+화와 *heart*+두려움으로 각각 칭함)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그 사용을 조사하는 것이 이 연구의 구체적 목표이다. 먼저, 유형 제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화와 두려움의 환유와 은유가 [HEART]와 결합하여 *heart*+화와 *heart*+두려움으로 확장되는지 검토한 후, 미국영어 말뭉치인 COCA에서 *heart*+화와 *heart*+두려움을 검색하여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둘째, 사용 조사는 동일 코퍼스 자료를 활용하여 *heart*+화와 *heart*+두려움의 유형별 사용의 차이를 조사하고, 두드러진 차이를 두 감정의 개념화와 연관 지어 분석한다. 은유의 사용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은

1) 사전에 제시된 의미의 순서가 사용빈도를 반영한다고 했을 경우 영어의 *heart*는 내부 신체기관인 '심장'의 개념이 심장을 덮고 있는 배에서 목덜미 사이의 더 넓은 부위인 '흉부'의 개념보다 흔하다(옥스퍼드사전, 맥밀란사전, 캠브리지사전). 반면, 우리말의 '가슴'은 '흉부'가 '심장'의 개념보다 더 흔하게 사용된다(표준국어대사전). 이 글에서는 영어 *heart*를 우리말로 표현할 경우 대부분 '가슴'으로 표현하고, 혈액을 운반하는 신체기관의 의미가 강할 경우, '심장'으로 표현하겠다.

유의 사용빈도가 동일 문화권 사람들의 개념에 대한 심리적 고착화(entrenchment)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습성(conventionality)을 반영하는 것(Schmid 2010)일 뿐이다. 라도, 은유 자체만으로 파악할 수 없던 개념화를 부각시키거나, 잘못 파악했던 개념화를 수정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Deignan 2008).

2절은 Kövecses(1990, 2000)에서 제시한 화와 두려움의 환유에 기초해 heart+화와 heart+두려움의 환유를 제시한다. 3절은 Kövecses(1990, 2000)에서 제시한 화와 두려움의 은유에 기초해 heart+화와 heart+두려움의 은유를 유형별로 제시한다. 4절은 말뭉치에서 heart+화와 heart+두려움을 검색하여 새로운 유형이 있는지 검토하고, 실제 사용에서 부각된 화와 두려움의 개념화에 대해 설명한다.

2. heart+화와 heart+두려움의 환유

heart를 활용한 감정 표현의 구성을 살필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감정 은유와 환유가 heart와 결합하여 heart+감정을 구성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heart+화와 heart+두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화와 두려움의 은유와 환유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화와 두려움의 환유를 확대해 heart+화와 heart+두려움의 구성 여부를 검토한다.²⁾

영어권에서 화의 환유로는 체열의 상승, 내부 압력, 얼굴과 목의 홍조와 발열, 몸의 떨림, 정확한 인식의 방해 등이 있다(Kövecses 1990:52). 반면 두려움의 환유로 Kövecses(1990:70-74)는 심장박동의 증가, 심장박동의 불규칙, 몸의 떨림, 움직일 수 없음, 안색이 하얗게 변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많은 감정이 심장 박동의 증가라는 환유로 표현되고, 화와 두려움을 느낄 때에도 생리적으로는 모두 심장박동이 증가한다. 그러나 Kövecses(1990:89)는 화의 환유에 심장박동의 증가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His heart pounded with anger*가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은 심박의 증가는 영어권에서 화의 민간모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화와 두려움 중 heart를 활용한 환유적 개념화가 두드러진 것은 두려움이다. 심장박동의 증가와 심장박동의 불규칙함이 포함되며, 이들은 각각 (1)처럼 격렬하고 빠르고 크게 뛰는 움직임으로, 혹은 (2)와 같이 불안정하게 뛰는 움직임으로 표현된다.

- (1) a. His heart beat wildly with fear.
- b. My heart began to thud with apprehension
- c. I sat up, my heart racing with fear.

2) 2절과 3절의 예는 heart를 활용한 화와 두려움의 표현이다. 대부분 COCA에서 검색한 예이지만, 간결성을 위해 수식어 등을 제거한 예도 있다.

d. With her heart in her throat, she strained to hear the ring connecting her to 911.

(2) Fear made her heart miss/skip a beat.

그런데 두려움의 환유에 속한 몸의 떨림도 *heart+두려움*으로 확대될 수 있다. (3)과 같은 가슴의 떨림도 관용적인 두려움의 표현이다.

(3) a. My heart is trembling with fear.

b. My heart was quivering with fear.

반면 화의 민간모형에는 심박의 증가가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4)에서 보듯이, 몸의 떨림이 가슴의 떨림으로 확대되지도 않는다. 다만, (5)에서 보듯이, 체열의 상승이라는 화의 환유는 [HEART]와 결합하여 관용적인 *heart+화*를 구성한다.

(4) a. ?My heart is trembling with anger.

b. ?My heart was quivering with anger.

(5) Scarlett's heart grew hot with anger.

3. *heart+화*와 *heart+두려움*의 은유

가장 단순한 개념의 *heart+화*나 *heart+두려움*은, *My heart is angry/fearful* 이나 *In my heart I am/(feel) angry/fearful(fear/anger)*와 같은 표현이 보여주듯이 화나 두려움에 대한 비유적 개념의 매개 없이, 단순히 가슴이 사람을 대체하거나 가슴을 감정을 느끼는 장소로 인식되는 경우이다. 이 절에서는 화와 두려움에 대한 은유적 개념화를 동반한 *heart+화*와 *heart+두려움*의 유형을 Kövecses가 제시한 감정이라는 총칭 단계의 은유와, 화와 두려움의 특칭 단계의 은유가 [HEART]를 포함하여 확대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3.1 화와 두려움의 은유

화 은유는 문화권을 망라해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될 만큼 큰 관심을 받아 왔다(Yu 2008b). 영어의 경우 화에 대해 다양한 은유들이 제시되었고(Kövecses 1986; Lakoff와 Kövecses 1987; 정희자 2002, 2004), 두려움도 원형 감정의 하나로 인식되고 그 은유가 제시되었다(Kövecses 1990; 정희자 2002, 2004). 이들 중 특히 Kövecses는 감정 개념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발표해 왔는데 (Kövecses 1986, 1990, 2000 등), 이 중 화와 두려움의

환유에 대해서는 Kövecses(1990)를 참고할 수 있고, 은유에 대해서는 이와 함께, 기본 감정 은유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Kövecses(2000)를 참고할 수 있다.

Kövecses(2000)에서 제시된 감정이라는 총칭단계의 은유는 [PRESENCE HERE], [BEING IN A BOUNDED SPACE], [LIVING ORGANISM], [POSSESSING AN OBJECT]라는 근원영역을 활용한다. 반면, 화와 두려움이라는 특칭 단계의 은유는 6가지 공통적인 근원영역을 활용한다. 두려움과 달리 화의 경우에는 뜨거움이 동반되는 액체([A (HOT) FLUID IN A CONTAINER])를 필두로, 사회적 강자, 자연력, 적, 정신병, 짐(burden) 등이 그것이다. 두려움에는 적용되지 않고 화에만 적용되는 근원영역으로는 [A CAPTIVE ANIMAL], [AGGRESSIVE ANIMAL BEHAVIOR], [TRESPASSING], [PHYSICAL ANNOYANCE], [A FUNCTIONING MACHINE]가 있고³⁾, 화에는 적용되지 않고 두려움에만 적용되는 근원영역으로는 [HIDDEN ENEMY], [TORMENTOR], [SUPERNATURAL BEING], [ILLNESS], [DIVIDED SELF]가 있다.

3.2 heart+화와 heart+두려움 은유: HEART AS A CONTAINER 유형

heart+화와 heart+두려움의 은유 중 관용성이나 빈도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가슴이 화와 두려움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이를 [HEART AS A CONTAINER] 유형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이 때 가슴은 화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위치하는 장소가 된다. 이들은 먼저 가슴이 총칭 단계의 감정 은유와 결합하는 단계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가슴이라는 그릇 안에 화와 두려움이 존재하거나(6a), 생명체로서 자라거나(6b), 물건으로서 담길 수 있다(6c).

- (6) a. EXISTENCE (OF ANGER/FEAR) IS PRESENCE (IN ONE'S HEART) → There's no anger/fear in her heart.
- b. ANGER/FEAR IS A LIVING ORGANISM (IN ONE'S HEART) → Anger/fear grows in one's heart.
- c. EXISTENCE (OF ANGER/FEAR) IS POSSESSION OF AN OBJECT (IN ONE'S HEART) → She has anger/fear in her heart.

일반 은유 개념 중 [BEING IN A BOUNDED SPACE]는 (7a, b)에서 보듯이 heart+화와 heart+두려움으로 확장되지 않는다.⁴⁾ 다만, *fear*보다 훨씬 강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terror*의

3) Kövecses(2000:21)와 다르게 Kövecses(2000:38)에는 화의 근원영역에 [DIVIDED SELF]를 포함하고 있다.

4) 이는 (i)에서 보듯이 다른 감정의 경우도 유사하며, 사랑의 감정만이 [HEART]가 감정이라는 그릇에 담기

경우, 두려움이라는 그릇 안에서 심장박동이 일어나기도 한다(7c). 그리고 이는 *fear*와 *anger*의 경우보다 일상적이고 관용적이다(7d,e).

- (7) a. ?His heart is in anger.
 b. ?Her heart is in fear.
 c. His heart leapt in terror.
 d. ?His heart leapt in fear.
 e. ?His heart pounded in anger.

그릇 안의 내용물은 다양하게 구체화된다. 무엇보다도 액체가 가장 두드러진다. 즉, 가슴은 화와 두려움 은유의 근원영역인 [FLUID IN A CONTAINER]와 결합하여 [ANGER/FEAR IS A FLUID IN ONE'S HEART]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화는 뜨거운 액체이고 두려움은 차갑거나 혹은 온도 개념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 (8) a. ANGER IS A HOT FLUID IN ONE'S HEART→ Her heart is bursting with anger; Her anger is simmering within her heart.
 b. FEAR IS A FLUID IN ONE'S HEART→ Panic floods my heart; Cold fear filled every heart.

이 외에도 다양한 개념이 가슴 속 내용물이 된다. (9)는 *heart*+화의 예인데, 앞 절에서 화의 은유를 구성하는 [FIRE], [BURDEN], [NATURAL FORCE], [SOCIAL SUPERIOR], [OPPONENT], [CAPTIVE ANIMAL]이 가슴 속 내용물로 담길 수 있다. (10)은 *heart*+두려움의 예인데, 앞 절에서 본 것처럼 두려움의 은유를 구성하던 [BURDEN], [NATURAL FORCE], [SOCIAL SUPERIOR], [OPPONENT], [HIDDEN ENEMY], [TORMENTOR], [SUPERNATURAL BEING], [ILLNESS]도 가슴 속 내용물이 될 수 있다.

- (9) a. ANGER IS A FIRE IN ONE'S HEART→She has a burning anger in her heart.
 b. ANGER IS A BURDEN IN ONE'S HEART→ She carried an anger in her heart; She opens her heart and releases the burden of anger she carried in her heart.
 c. ANGER IS A NATURAL FORCE IN ONE'S HEART⁵⁾→Her heart was filled

는 방식으로 확장된다.

His heart is in love/?sadness/?joy.

- with a raging storm.
- d. ANGER IS A SOCIAL SUPERIOR IN ONE'S HEART→He was governed by anger in his heart.
- e. ANGER IS AN OPPONENT IN ONE'S HEART→I was struggling with my anger in my heart; He was seized by anger in his heart.
- f. ANGER IS A CAPTIVE ANIMAL IN ONE'S HEART→ He held resentment in his heart for her.
- (10) a. FEAR IS A BURDEN IN ONE'S HEART→ He carries his fear around in his heart.
- b. FEAR IS A NATURAL FORCE IN ONE'S HEART→ The fear in his heart swept over him; There was a surge of fear in his heart
- c. FEAR IS A SOCIAL SUPERIOR IN ONE'S HEART→The fear in his heart governed him for a long time.
- d. FEAR IS AN OPPONENT IN ONE'S HEART→The fear was banished from his heart.
- e. FEAR IS A HIDDEN ENEMY IN ONE'S HEART→ Fear was creeping through his heart; He was hounded by the fear in his heart.
- f. FEAR IS A TORMENTOR IN ONE'S HEART→ My mother was tormented by the fear in her heart.
- g. FEAR IS A SUPERNATURAL BEING IN ONE'S HEART→ He was haunted by the fear in his heart.
- h. FEAR IS AN ILLNESS IN ONE'S HEART→ He was sick with the fright in his heart.

[HEART AS A CONTAINER] 유형이 두려움에서 더 다양한 내용물을 담는다는 사실은, Kövecses (2000)의 두려움 은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CAPTIVE ANIMAL]이, *heart+두려움*에서 흔히 나타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

- (11) FEAR IS A CAPTIVE ANIMAL IN ONE'S HEART→ The anxiety was held within my heart; The fear fled my heart.

5) 화를 자연력으로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력을 화로 표현하는 것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i) Indeed, the tempest raging in his heart.

(ii) The torrent would rage into Downtown's heart.

6) COCA에서 (11)의 [CAPTIVE ANIMAL]이 포함된 *heart+두려움*은 흔히 발견된다.

3.3 *heart*+화와 *heart*+두려움 은유: HEART AS AN AGONIST 유형

heart+화와 *heart*+두려움의 두 번째 유형은 화와 두려움의 은유가 [HEART AS AN AGONIST]라는 개념화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12)는 3.1절의 화 은유가 *heart*+화로 확대된 경우이며, (13)은 두려움 은유가 *heart*+두려움으로 확대된 경우이다. 화의 경우 [OPPONENT], [BURDEN], [NATURAL FORCE], [SOCIAL SUPERIOR]가 가슴과 결합하며, 두려움의 경우 이들과 함께 [ILLNESS]와 [TORMENTOR]가 가슴과 결합할 수 있다.

- (12) a. ANGER IS AN OPPONENT (IN A STRUGGLE) TO ONE'S HEART→My heart was seized with anger; anger struck her heart; Anger took hold of my heart.
 b. ANGER IS A BURDEN TO ONE'S HEART→His heart carries anger; Anger pressed (down) on his heart.
 c. ANGER IS A NATURAL FORCE TO ONE'S HEART→Anger swept through/over my heart; My heart flooded with anger.
 d. ANGER IS A SOCIAL SUPERIOR TO ONE'S HEART→ His heart was governed by anger; His heart is ruled by anger; Fury reigned in my heart.
- (13) a. FEAR IS AN OPPONENT (IN A STRUGGLE) TO ONE'S HEART→Fear clutched her heart; A cold hand of fear gripped my heart.
 b. FEAR IS A BURDEN on/over ONE'S HEART⁷⁾→The weight of apprehension lifted from his heart; Fear weighed heavily on his heart; Fear pressed (down) on his heart.
 c. FEAR IS A NATURAL FORCE OVER ONE'S HEART→Panic floods my heart; She felt a terrible dread engulf her heart.
 d. FEAR IS A SOCIAL SUPERIOR TO ONE'S HEART→ Fear reigned over my heart; Do not let fear rule your heart; Her heart is governed by fear.
 e. FEAR IS AN ILLNESS OF THE HEART→ His heart was sick with fright; My heart feels pain of fright.
 f. FEAR IS A TORMENTOR OF THE HEART→ My heart is tormented with fear.

7) 두려움에 질린 가슴 자체가 짐(burden)이 되는 경우도 있다.

As if weighed down by a heart swollen with terror,

[OPPONENT], [BURDEN], [NATURAL FORCE], [SOCIAL SUPERIOR], [ILLNESS], [TORMENTOR] 등은 총칭적으로 [FORCE]라는 보다 보편적 범주의 구성원들이다. heart+두려움의 [FORCE]는 heart+화보다 더 다양하여, 병(illness)과 괴롭히는 자(tormentor)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Kövecses가 두려움 은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다음 [PHYSICAL FORCE]도 heart+두려움에 나타나는 [FORCE] 중의 하나이다.

- (14) FEAR IS A PHYSICAL FORCE TO ONE'S HEART→A chill gripped her heart; Her heart was squeezed tight with anxiety; Anxiety tugged at my heart.

위의 은유에서 발견되는 heart는 대부분 가슴의 민간모형인 [HEART AS A PERSON]의 개념화를 보인다. 그러나 (12), (13)에서 자연력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는 [HEART]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나 인공 구조물로 인식될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 또한 (14)에서 가슴에 가해지는 물리력은 (15)에서 보듯이 사람에게에는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⁸⁾

- (15) a. ?She was squeezed tight with anxiety.
b. ?A chill squeezed her.

그런데 이들은 모두 감정의 주은유(master metaphor)인 [EMOTION IS A FORCE]의 구체적 사례이기도 하다. 이 때의 가슴은 감정을 느끼는 경험주이며 동시에 [FORCE]에 대항하는 자(agonist)이다. 따라서 이 유형을 가슴이 사람이나 구조물로 실현될 수 있는 [HEART AS AN AGONIST]로 통칭할 수 있겠다.

3.4 기타

그 밖에 감정의 총칭 은유나 화와 두려움의 은유가 heart+화나 heart+두려움으로 확대되는 몇몇 방식이 있다. 먼저 가슴에 화나거나 무서워하는 속성을 부가하여 화와 두려움을 개념화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HEART] 자체는 [FEELING]으로 개념화되며, 화난 가슴과 겁먹은 가슴은 다시 물건으로 개념화된다는 것을 (16)을 통해 알 수 있다.

- (16) EXISTENCE (OF ANGER/FEAR) IS POSSESSION OF AN (ANGRY/FEARFUL) HEART → She has an angry heart; She has a fearful heart.

8) Kövecses (2000:37)는 두려움 은유 목록에서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두려움 은유를 간략하게 언급하면서는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화의 은유 중 다음 은유는 그릇으로서의 가슴이나 대항자로서의 가슴의 속성이 보이지 않는 *heart+화*라 할 수 있다.

- (17) THE CAUSE OF ANGER IS TRESPASSING OVER MY HEART→Here my heart draws the line.

그런데 화와 두려움 은유 중 *heart+화*와 *heart+두려움*으로 확대되지 않는 것도 있다. (18)에 나타난 것처럼 화의 [INSANITY], [AGGRESSIVE ANIMAL BEHAVIOR], [PHYSICAL ANNOYANCE], [A FUNCTIONING MACHINE]과, (19)에서 볼 수 있는 두려움의 [INSANITY], [A DIVIDED SELF]가 그러하다.

- (18) a. ?My heart is insane/crazy/mad with anger.
 b. ?Don't snarl at my heart.
 c. ?He's the pain in my heart; ?He threw the itch in my heart.
 d. ?That really got his heart going/starting.
- (19) a. ?My heart is insane with fear.
 b. ?My heart is beside myself/itself with fear.

4. *heart+화*와 *heart+두려움*의 사용

이 절에서는 COCA에 기초하여 *heart+화*와 *heart+두려움*의 사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두려움이 화에 비해 [HEART]의 활용도가 훨씬 높다는 점과, *heart+화*와 *heart+두려움*의 은유가 [HEART AS A CONTAINER], [HEART AS AN AGONIST]의 유형뿐 아니라 제3의 유형이 있음을 확인한다. 더 나아가 *heart+화*와 *heart+두려움*은 은유와 환유 사이에, 그리고 세 가지 다른 유형의 은유 사이에 선호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화와 두려움의 원형 시나리오와 감정 개념을 이용하여 논의한다.

4.1 자료선별과 분류

웹상에서 사용이 가능한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⁹⁾는 1990-2012년까지의 약 4억5천만 단어로 구성된 대규모 말뭉치로서 본 연구의 목적상 적절한 자료모음이다. 문법의 용례와 달리 의미의 용례는 그 빈도가 훨씬 적어서 의미나 개념의

9) <http://corpus.byu.edu/coca/>

사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코퍼스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COCA에서 *heart+화*와 *heart+두려움*의 용례를 선별하는 작업은 관련 유의어를 기준으로 검색하는 Deignan(1999)의 방식에 기초하여 *anger*와 *fear*의 유의어가 *heart*와 공기하는 예를 검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검색방법은 *heart*를 포함한 화와 두려움의 환유, 총칭단계의 은유, 특칭단계의 은유 거의 대부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화와 두려움의 유의어 목록을 선정하는 작업은 옥스퍼드 유의어사전¹¹⁾, 콜린스유의어사전¹²⁾, 맥밀란 유의어사전에서¹³⁾ 각각 *anger*와 *fear*의 유의어를 검색한 후 적어도 두 사전에서 공통으로 유의어로 제시한 것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anger*의 유의어 목록은 (20), *fear*의 유의어 목록은 (21)과 같이 추출하였다.

(20) *anger, annoyance, vexation, exasperation, irritation, irritability, indignation, displeasure, resentment, rage, fury, wrath, outrage, temper, spleen, ill humor, ire*

(21) *fear, terror, fright, fearfulness, horror, alarm, panic, trepidation, dread, apprehension, apprehensiveness, timidity, phobia*

COCA에서 이들 목록과 *heart*가 공기하는 예를 추출하기 위해 (20), (21)을 기준으로 그 앞뒤 9번째까지의 어휘와 *heart*가 공기하는 예를 먼저 검색하였다. 그 결과, (20)과 *heart*가 공기하는 230개의 예와, (21)과 *heart*가 공기하는 662개의 예가 검색되었다.

검색한 예를 대상으로 *heart+화*와 *heart+두려움*을 선정하는 작업에는 몇 가지 기준이 적용되었다. 먼저, 화와 두려움의 유의어가 *heart*와 문장 단위를 벗어나 위치해도, *heart*를 이용하여 화나 두려움을 표현한 경우라면 모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예컨대 *heart*의 직전 혹은 직후 문맥에 화나 두려움이 포함된 (22)와 같은 경우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분류한 예문 중에 감정표현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들이 동일한 감정을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하나로 간주하였다. COCA는 (23a)와 같은 예문의 경우, *heart*의 앞뒤 ±9 안에 *terror*와 *fear*라는 두 개의 낱말이 있으므로 두 개의 용례로 제시하였으나, 동일한 두려움을 심장박동이라는 하나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문으로 간주한 것이다. 반면, (23b)와 같은 경우,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감정이 심장박동과 가슴에 가해지는 힘이라는 두 개념화로 표현되기 때문에 두려움의 두 다른 용례로 간주하였다.

10) *heart+화*와 *heart+두려움* 중 이 방식으로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는 *In my heart I am(/feel) angry(/fearful)*이나 *I have an angry(/fearful) heart, My heart is angry(/fearful)*과 같은 화와 두려움의 형용사가 관련된 예이다. 이 예들은 감정의 개념화가 은유적이지 않고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과 다르다.

11) <http://www.oxforddictionaries.com/thesaurus/>

12) <http://www.collinsdictionary.com/english-thesaurus/>

13) <http://www.macmillandictionary.com/>

- (22) A wave of rage welled up in me; my heart pounded.
- (23) a. Jessica Fitzpatrick woke up screaming, her heart pounding out a rhythm of terror. Fear was a living, breathing entity in the darkness of her room.
- b. Claustrophobic terror washed through Vera's beating heart.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heart*+화와 *heart*+두려움을 선별한 결과, 각각 98개와 416개의 예문이 선별되었다.

용례를 선별한 후 이들을 *heart*를 활용한 환유와 은유로 구분하였다. 이 때 심장박동이나 떨림은, (24)와 같이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소위 Goossens(1990)의 환유 속에 은유(*metaphor in a metonymy*)가 포함된 경우인데, 환유로 분류하였다.¹⁴⁾

- (24) Fear kicked her heart into a flat-out gallop.

그 다음 은유로 분류된 예문 중 [HEART AS A CONTAINER], [HEART AS AN AGONIST]라는 [HEART]의 개념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형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화와 두려움이 *heart*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식의 선호도를 비교하였다.

4.2 결과와 논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결과는 *heart*+화와 *heart*+두려움의 조사 결과 두려움의 용례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즉, 두려움이 화에 비해 [HEART]의 활용도가 두드러지게 높다. 가슴은 여러 문화에서 감정과 관련되지만 서양문화에서의 가슴은 사랑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왔다(Niemeier 2008; 조영순 2014). 이 결과는, 화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과 가슴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반 알려진 것이 없었는데, 개별 감정과 가슴의 관련이 정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두려움이 화보다 가슴의 활용이 높은 점은 두려움이 용기(*courage*)의 대칭 개념이라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권에서 가슴은 감정의 거처로 개념화되기도 하지만 *My heart shall not fear; You have a strong heart and no fear* (COCA)에서 알 수 있듯이 용기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용기, 즉 가슴이 어떤 방식으로는 약해지

14) Goossens(1990)은 은유와 환유의 결합 표현에 대해 '환유에서 발전한 은유'와 '은유 속의 탈환유'처럼 표현의 발전단계를 고려하고, '은유 속의 환유'와 '환유 속의 은유'처럼 은유와 환유 사이의 포함관계를 감안해 유형을 분류한다. 이들 중 *heart*+감정에서는 심장박동의 증가를 은유를 사용하여 표현한 환유 속의 은유가 가장 많이 발견된다.

거나 공격받거나 피해를 보는 것과 개념상 관련지을 수 있다. 따라서 화보다는 두려움의 표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가슴이 활용될 여지가 높다.

두 번째로는 heart+화와 heart+두려움 예문을 대상으로 3절에서 밝힌 유형의 은유 외에 새로운 유형이 있는지 검토한 결과 (25), (26)과 같이 심장의 속성, 예를 들어 심장의 크기, 색깔, 촉감, 온도 등을 활용한 화와 두려움의 개념화 유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25) a. *My heart shrinks with resentment.*
 b. *His heart (is) black with rage and spite.*
 c. *After all the anger, Gail Rich said she wanted her heart to be tender again.*
- (26) a. *My heart contracted in dread .*
 b. *His heart was chilly with the fear.*
 c. *His heart is hard with panic.*

(25)는 화의 예이며, (26)은 두려움의 예이다. (25)의 예를 바탕으로 화는 심장이 작(아지)고, 검(어지)고, 굳(어지)는 속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6)의 예를 바탕으로 두려움은 심장이 작(아지)고, 서늘하(여지)며, 굳(어지)는 속성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이 특별히 눈길을 끄는 이유는 본래 작거나 어둡거나 차갑거나 딱딱한 것이 화나 두려움의 개념화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아래, 밝음-어두움, 따뜻함-차가움, 귀중한 것-하찮은 것은 행복-슬픔, 자부심-부끄러움, 애정-무관심과 같이 본질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을 개념화할 때 사용되며, 이러한 속성은 화, 두려움, 낭만적 사랑, 욕정, 놀람을 개념화할 때는 활용되지 않는다(Kövecses 2000:44). 그러나 (25)과 (26)은 화와 두려움이 모두 심장의 부정적 속성으로 개념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장의 속성 중 부정적 속성을 이용해 부정적 느낌을 표현한 이 [BAD HEART FOR BAD FEELING] 유형을 heart+화와 heart+두려움 은유의 제 3의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¹⁵⁾

세 번째, heart+화와 heart+두려움의 은유와 환유의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¹⁶⁾

15) 이는 Niemeier(2008)가 밝힌 영어 감정 표현의 [HEART]의 개념화 중 [HEART FOR FEELING]의 한 유형이기도 하다.

16) 앞에서 언급한 은유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the heart to turn that anger into actual songs, Her calm voice masked the terror she felt in her heart at losing this special person, Fear darkly bloomed near her heart* 등이 기타에 포함되었다.

〈표1〉 은유와 환유의 선호도

	<i>heart+화</i> (비율) ¹⁷⁾	<i>heart+두려움</i> (비율)
환유	27(28.1)	194(46.4)
은유	64(66.7)	210(50.7)
기타	5(5.2)	12(2.9)
합	96(100)	416(100)

〈표1〉은 화와 두려움이 *heart*을 이용하여 표현될 때 서로 다른 표현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chi-squared = 370.7185, df = 2, *p*-value < 2.2e-16).

*heart+화*와 *heart+두려움*은 둘 다 은유와 환유로 표현되고, 은유를 더 많이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려움은 화보다 환유의 사용이, 화는 두려움보다 은유의 사용이 많다. *heart+화*의 환유 사용이 적은 것은, 화의 민간모형에는, 2절에서 밝힌 것처럼, 심장박동의 증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의 표현에 이를 활용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두려움의 개념화에 심장 박동이 강하거나(27a), 빠르거나(27b), 불규칙해짐(27c)을 활용하는 것처럼, 화의 개념화에도 심장의 강한 박동(28a), 빠른 박동(28b), 불규칙한 박동(28c) 등이 정도는 덜하지만 활용하고 있다. 감정표현이 주로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고, 소설은 생생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쓰는 경향이 일상어보다 많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 (27) a. *His heart beat wildly with fear.*
 b. *I sat up, my heart racing with fear.*
 c. *Fear made her heart miss/skip a beat.*
- (28) a. *Her heart pounded with anger/ irritation/trepidation.*
 b. *Lilly, whose face flushed and whose heart raced with righteous anger at any exhibition of intolerance...*
 c. *My heart leapt up with anger and joy.*

화와 두려움의 원형시나리오와 감정의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환유의 사용을 설명할 수도 있다.¹⁸⁾¹⁹⁾ 환유는 주로 화와 두려움이 발생한 후 이들이 자아(self)에 존재하는 2단계를 표현하며, 개념적으로는 두 감정의 강도가 올라가는 것을 표현 한다. 〈표1〉의 결과는 *heart+두려움*이 *heart+화*보다 감정의 존재 강도를 표현하는 환유의 개념화를 더 활용한다는 것을

17) 소수들께 자리에서 반올림함.

18) Kövecses(1990)가 밝힌 화의 원형 시나리오(Kövecses 1990:67)와 두려움의 원형 시나리오(Kövecses 1990:79)는 감정의 시간 차원을 반영한 다음의 다섯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보여준다.

다음으로, 은유에 속한 용례들을 대상으로, [HEART AS A CONTAINER], [HEART AS AN AGONIST], [HEART FOR BAD FEELING] 유형의 사용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2>와 같다(chi-squared =166.6932, df=2, p-value < 2.2e-16).

<표2> 은유 유형 사이의 선호도

	heart+화(비율)	heart+두려움(비율)
[CONTAINER]	42(65.6%)	128(61.1%)
[AGONIST]	12(18.8%)	73(34.6%)
[BAD HEART]	10(15.6%)	9(4.3%)
합	64(100%)	210(100%)

두 감정은 [HEART]의 개념화를 모두 <그릇> 대항자> 못된 가슴 순으로 활용한다는 유사점이 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정도에 관한 것이다. [HEART AS A CONTAINER]의 활용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HEART AS AN AGONIST]로서의 활용은 두려움이 화보다 많다는 점과, [HEART FOR BAD FEELING]의 활용이 화가 두려움보다 많다는 점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두 감정 모두 [HEART AS A CONTAINER]의 사용이 가장

	화	두려움
1단계	불쾌한 사건 발생	위험 발생
2단계	화 존재	두려움 존재
3단계	통제 시도	통제 시도
4단계	통제 상실	통제 상실
5단계	응징	도주

19) 화와 두려움을 포함한 감정 은유들은 감정의 전형적인 몇 가지 속성을 보여주는 다음의 감정 개념을 나타낸다(Kövecses 2000:41-48). 이들은 감정과 관련된 개념이지만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 개념이기도 하다(Kövecses 2000:47).

- (i) 존재: [PRESENCE HERE], [BEING IN A BOUNDED SPACE], [POSSESSING AN OBJECT]
- (ii) 강도: [AMOUNT/QUANTITY], [HEAT], [GROWTH], [STRENGTH OF EFFECT]
- (iii) 수동성: [PHYSICAL EFFECTS OF FORCES]
- (iv) 통제시도: [STRUGGLE WITH FORCE]
- (v) 통제실패: [LOSS OF CONTROL OVER FORCE]
- (vi) 통제부재: [LACK OF CONTROL OVER FORCE], [DIVIDED SELF]
- (vii) 긍정, 부정평가: [ILLNESS], [UP-DOWN], [LIGHT-DARK], [WARM-COLD], [VALUABLE-NOT VALUABLE]
- (viii) 어려움: [BURDEN]
- (ix) 욕망: [HUNGER]
- (x) 피해: [PHYSICAL DAMAGE]

많다는 사실은 그릇이 다양한 개념화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범어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수궁이 가는 결과이다. 그러나 관련 예를 검토하여 *heart+화*와 *heart+두려움*은 서로 다른 이유에서 이 유형의 사용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인 과정은 두 감정의 원형시나리오와 감정 은유에 나타난 감정 개념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두 감정의 예를 세밀히 분석한 결과 최초 발생 단계와, 존재(EXISTENC), 강도(INTENSITY)라는 감정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빈도를 표시한 결과가 <표3>이다(chi-squared = 15.8256, df = 3, p-value = 0.001231).

<표3> 그릇 안의 감정의 단계

단계/개념	heart+화	heart+두려움
발생단계	5(11.9%)	65(50.8%)
존재	13(31%)	27(21.1%)
강도	17(40.5)	17(13.3%)
기타	7(16.7%)	19(14.8%)
	42(100%)	128(100%)

<표3>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두려움의 발생 단계와 관련된 빈도이다. 두려움을 [HEART AS A CONTAINER]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경우의 절반이 두려움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다. 용례를 분석한 결과, 두려움의 발생은 거의 대부분 두려움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이동으로 개념화되는(Kövecses 1990:81)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두 공간을 구분 짓는 그릇의 영상도식이 필요하다. 실제 <표3>의 두려움의 시작단계를 표현하는 65개의 예 중 6개만이 두려움이 그릇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59개의 예문은, (29)에서 보듯이, 외부에서 이동해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²⁰⁾

- (29) a. If they would kill her simply to *put fear into his heart*, they would think nothing of killing him.
 b. This must have *struck fear in everybody's heart*, the discovery that Tiffany has been killed.
 c. Sex and violence - these words *bring fear into every parent's heart*.

20) [HEART AS A CONTAINER]의 예에서 발견되는 두려움의 소멸 단계는 6개의 예 중 5개가 그릇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개념을 활용하여 발생과 마찬가지로 그릇의 존재를 필요로 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용례가 너무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반면, 화의 발생단계는 대부분, (30)에서처럼,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개념화되고 있다.²¹⁾ 그릇이 필요할 수 있으나,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²²⁾

- (30) a. *Anger rose in my heart for a government that would send our young men and women into a 21st-century Vietnam.*
 b. *It can stir resentment in the purest heart as well as raise questions about motive and character.*

이 결과는 화와 두려움과 원형 시나리오에 대한 Kövecses (1990:81)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는 영어권의 화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데 반해, 두려움은 두려움의 유발자인 위험(danger)이 외부에서 ‘자아’라는 내부로 들어오며, 그 이동은, *put/cast/strike/throw fear into ...*을 활용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한다. 즉 두려움은,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1단계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존재하는 2단계가 하나의 단계로 통합되는 개념화를 가진다. 다만, [HEART AS A CONTAINER] 유형의 자료는 이 두 다른 발생 방식 중 두려움의 발생방식이 훨씬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두드러진 개념은 화의 강도이다. 화의 강도가 [HEART AS A CONTAINER] 유형을 활용하여 표현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다. 화의 개념화에 자주 사용되는 압력과 폭 발은 이를 담는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단순히 감정이 가슴 속에 존재한다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HEART AS A CONTAINER] 유형을 활발히 활용하는 것은 화나 두려움에서 모두 확인된다. [HEART AS A CONTAINER] 유형이 발생, 존재, 강도를 나타내는 데 활용되는 것은 화의 경우 83.3%, 두려움의 경우 85.2%로 두 감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요약하면, 화와 두려움은 [HEART AS A CONTAINER]를 가장 많이 활용하지만, 이를 통해 가장 부각되는 것은, 화의 경우 강도이며, 두려움의 경우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발생 단계이다.

<표2>는 또한 두려움이 [HEART AS AN AGONIST]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이 표현하는 감정의 단계는 여러 단계에 걸쳐있다. 두려움이라는 적은 처음에 가슴을 포위하고 뉘아채며 손아귀에 넣고 공격해하고, 마침내 심장을 잡아먹는다(31). 화도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화가 심장을 에워싸는 단계에서 마침내 심장이 먹히는 단계까지 다양하게 발견된다(32). 두려움의 마지막 단계인 도망과, 화의 마지막 단계인 화의 분출은 발견되지

21) <표3>에서 화의 발생과 관련된 네 가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2) COCA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anger rose*를 검색하여 얻은 25개의 예문 중 12개는 그릇 없이, 13개는 그릇을 포함하고 있다.

않는다.

- (31) a. You feel the fingers of fear *wrapping around your heart*?
 b. Fear was in his breast, *clutching his own heart*.
 c. Kat held her breath as *trepidation pierced her heart*.
 d. Do you not think that fear has *gnawed at my heart*.
 (32) a. A ribbon of anger *wrapped itself around her heart*.
 b. Anger and intolerance *choking his own heart*.
 c. Suddenly the anger *tore through Ipa's heart*.
 d. So cold with hatred, or anger, or something that had *eaten away his heart*.

이들은 다양한 감정 개념을 보여주지만,²³⁾ 포괄적으로는 감정이라는 [FORCE]로 인해 공격받고 신체적 피해를 입는 가슴의 수동성을 가장 많이 나타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HEART AS AN AGONIST]예의 78%). 따라서 <표2>의 결과는 두려움이 화보다 가슴의 수동성을 더 부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HEART AS AN AGONIST] 유형을 사용하는 두려움의 빈도가 많다는 사실만이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두려움이 가슴에 가하는 [FORCE]는 물리력, 자연력, 아픔과 같이 다양하다(33). 그러나 화의 [FORCE]로는 적(OPPONENT)만 발견되었다.

- (33) a. A cold hand of fear *gripped my heart*.
 b. She felt a terrible dread *engulf her heart*.
 c. *My heart ached with horror and pity*.

이 사실도 두려움의 대칭 개념인 용기(courage)와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용기가 훼손당하는 것이며, 이는 용기와 동일시되는 가슴이 훼손당하는 것과 같다. 가슴이 두려움의 적극적 대항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슴 (혹은 가슴으로 개념화되는 자아)가 두려움의 통제 상실로 인한 상해를 입는 유일한 대상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23) 하나의 은유 표현은 이들 감정 개념을 중복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예컨대 (i)(ii)는 자아가 피해를 입는 것이기도 하지만 감정 조절의 실패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Kövecses는, 예컨대 자연력과 물리력이라는 개념이 강도, 수동성, 통제 등 중첩된 개념의 표현에 활용된다고 밝히고 있다(Kövecses 2000:41-43).

(i) He burst with anger.

(ii) He came apart at the seams.

는 화의 통제 상실로 인한 상해가 자아뿐 아니라 잘못을 유발한 자(wrongdoer)로 분산된다는 점과 구별된다. 두려움이 화보다 [HEART AS AN AGONIST]의 활용이 많은 것은 용기와 가슴의 개념관계, 두려움의 통제 상실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개념 등이 관련 있다.²⁴⁾

<표2>는 화가 두려움보다 [BAD HEART FOR BAD FEELING]을 더 많이 활용한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활용되는 [BAD HEART]의 속성 중에는 어두움과 차가움의 속성이 두드러졌다. 다만 차가움은, 화의 경우 [COLD]한 속성으로, 두려움의 경우 [CHILL]한 속성으로 실현되고 있다(34). 심장의 딱딱해지거나 작아지는 속성도 활용한다(35).

- (34) a. His heart (is) *black* with rage and spite, thinking only of revenge.
 b. She was held absolutely in the *cold* heart of anger.
 c. His heart was *chilly* with the fear.
- (35) a. Eleanor felt her annoyance dissipate, and her heart *softened* a little.
 b. Every time I hear that my sister's twins ... have spent the night at Grandma's house, my heart *shrinks* with resentment.

이들 용례가 표현하는 감정의 단계는 주로 감정을 느끼는 존재와 통제의 실패 단계이지만 이들 은 서로 중첩되어 그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심장이 딱딱해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단계를 표현하는지, 감정 통제를 실패해서인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들이 나타내는 감정 개념은 유사한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려움과 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이 두려움보다 화에서 더 사용된다는 것은 화에 대한 부정평가가 더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를 화가 두려움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감정이라고 확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감정의 평가 개념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 예컨대 몸이나 다른 신체 기관을 활용한 (36)과 같은 은유 표현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감정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가는 이러한 모든 경우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 (36) a. *Cody shrinks in fear* from the implications of the burden placed on him by his mother's.
 b. *Connie's stomach contracted with fear* of what he was doing.

24) (34)에서의 [HEART]는 [HEART AS A PERSON]으로 개념화되기도 하지만 심장이라는 신체장기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즉, [AGONIST]는 다양한 개념으로 실현된다. (16)의 예 참조.

6. 결론

지금까지 인지의미론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던 감정 연구를 확장하여 감정과 가장 밀접한 신체 기관인 가슴 혹은 심장을 활용한 화와 두려움의 표현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 사용을 분석하여 두 감정의 몇 가지 개념화가 부각됨을 확인하였다.

관용적인 *heart+화*와 *heart+두려움*은 환유와 은유로 구성된다. 두려움은 심박의 증가와 심장의 떨림이라는 환유를 가진다. 화와 두려움은 [HEART]와 결합한 은유가 있으며, Kövecses의 화와 두려움 은유에 기초해 파악한 *heart+화*와 *heart+두려움*은 [HEART AS A CONTAINER]와 [HEART AS AN AGONIST] 유형이 있다.

말뭉치 자료를 이용한 *heart+화*와 *heart+두려움*의 사용 분석은 화와 두려움의 개념화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보여주었다. 먼저, 가슴을 활용한 표현의 사용은 화보다 두려움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영어에서 가슴 혹은 심장은 용기의 주거지로도 인식되고, 두려움은 용기가 훼손된 상태의 감정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용 분석을 통해 *heart+화*와 *heart+두려움*에는 심장의 부정적 속성을 활용한 제 삼의 유형 [BAD HEART FOR BAD FEELING]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유형은 심장의 어두움, 차가움, 딱딱함, 작아짐과 같은 속성을 이용하며, 두 감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heart+화*와 *heart+두려움* 환유와 은유의 유형별 활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감정은 [HEART AS A CONTAINER], [HEART AS AN AGONIST], [BAD HEART FOR BAD FEELING] 유형 순으로 은유의 활용도가 높으나 그 내용과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화와 두려움은 [HEART AS A CONTAINER]유형을 감정의 존재단계에서 유사한 정도로 활발하게 활용하지만, 두려움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발생개념을, 화는 강도 개념을 가장 부각한다는 차이가 있다. 두려움은 화에 비해 [HEART AS AN AGONIST]유형의 활용이 높다. 이는 두려움과 용기 사이의 개념적 대칭관계와, 용기와 가슴을 연결하는 문화적 개념화의 특성으로 인해 두려움에 대한 가슴의 수동적 입장이 부각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화는 두려움보다 [BAD HEART] 유형을 활용하여 화에 대한 부정평가를 개념화하는 경향이 크다.

참고문헌

- 김향숙. (2001). *한국어 감정표현 관용어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배도용. (2001). *우리말 신체어의 의미 확장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배도용. (2002). 우리말 ‘머리’의 의미 확장 연구. *국어학*, 40, 269-296.
 이광호. (2006). ‘낮’과 ‘얼굴’의 의미고찰. *어문학* 93, 81-108.

- 임지룡. (2006). *말하는 몸*. 서울: 한국문화사.
- 임혜원. (2013). *언어와 인지: 몸과 언어 의미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서울: 한국문화사.
- 정희자. (2002). *담화와 추론*. 서울: 한국문화사.
- 정희자. (2004). *담화와 비유어*. 서울: 한국문화사.
- 조영순. (2014). Heart+ 사랑: 비유표현과 개념구성. *영어영문학* 21, 27(3), 257-281.
- Caballero, R., & Díaz-Vera, I. E. (Eds.), (2013). *Sensuous cognition: Explorations into human sentence: imagination, (e)motion, and perception*. Berlin/Boston: Walter de Gruyter.
- Charteris-Black, J. (2003). Speaking with forked tongue: a comparative study of metaphor and metonymy in English and Malay phraseology. *Metaphor and Symbol, 18*, 289-310.
- Deignan, A. (1999). Corpus based research into metaphor. In L. Cameron & G. Low (Eds.), *Researching and applying metaphor* (pp. 177-19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ignan, A. (2008). Corpus linguistics and metaphor. In R. W. Gibbs, Jr. (Ed.), *The Cambridge handbook of metaphor and thought* (pp. 280-29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ossens, L. (1990). Metaphonymy: The interaction of metaphor and metonymy in expressions for linguistic action, *Cognitive Linguistics, 1*(3), 323-340.
- Johnson, M. (1987).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reason and imagin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övecses, Z. (1986). *Metaphors of anger, pride, and love: A lexic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concepts*. Amsterdam: John Benjamins.
- Kövecses, Z. (1990). *Emotion concepts*, New York: Springer-Verlag.
- Kövecses, Z. (2000). *Metaphor and emotion: Language, culture, and body in human feel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övecses, Z. (2002).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koff, G., & Kövecses, Z. (1987). The cognitive model of anger inherent in American English. In D. Holland & N. Quinn (Eds.), *Cultural models in language and thought* (pp. 195-22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 Johnson, M. (1999).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 Niemeier, S. (2000). Straight from the heart-metonymic and metaphoric explorations. In A. Barcelona, (Ed.), *Metaphor and metonymy at the crossroads: A cognitive perspective* (pp. 195-213). Berlin: Mouton de Gruyter.
- Niemeier, S. (2008). To be in control: Kind-hearted and cool-headed. the head-heart dichotomy in English. In F. Sharifian, R. Dirven, N. Yu, & S. Niemeier (Eds.), *Culture, body and language* (pp. 349-372). Berlin: Mouton de Gruyter.
- Schmid, H. J. (2010). Does frequency in text instantiate entrenchment in the cognitive system? In D. Geeraerts and J. R. Taylor (Eds.), *Quantitative methods in cognitive semantics: Corpus-driven approaches* (pp. 101-136).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 Sharifian, F., Dirven, R., Yu, N., & Niemeier, S. (Eds.) (2008). *Culture, body and language*, Berlin: Mouton de Gruyter.
- Talmy, L. (1988). Force dynamics in language and cognition, *Cognitive Science*, 12, 49-100.
- Yu, N. (2003). Chinese metaphors of thinking. *Cognitive Linguistics*, 14, 141-165.
- Yu, N. (2008a). Metaphor from body and culture. In R. W. Gibbs (Ed.), *The Cambridge handbook of metaphor and thought* (pp. 247-26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u, N. (2008b). The Chinese HEART as the central faculty of cognition. In F. Sharifian, R. Dirven, N. Yu, & S. Niemeier (Eds.), *Culture, body and language* (pp. 131-168). Berlin: Mouton de Gruyter.

조영순

550-749 전남 여수시 둔덕동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문화사회과학대학 국제학부
 전화: (061) 659-7514
 이메일: ysncho@jnu.ac.kr

Received on October 10, 2014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ember 20, 2014

Accepted on December 5, 2014